

## 조선시대 난대성 식물의 분포역 변화

공 우 석 · 원 학 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기초과학연구소

### Distributional Ranges of the Warmth-Tolerant Plants during the Chosun Dynasty Period

Woo-Seok Kong and Hack-Hee Won

Department of Geography and Research Institute of Basic Sciences,  
KyungHee University, Seoul, 130-701, Korea

#### 요 약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임원십육지, 대동지지, 증보문헌비고, 조선일람 등 고문헌을 이용하여 난대성 식물의 시·공간적 분포를 복원하였다. 난대성 식물종의 지리적 분포는 9가지 유형으로, 시계열적 분포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조선시대 동안 한 시기라도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인 난대성 식물은 전국의 100곳 이상의 군현에서 출현한 감나무이다. 50곳 이상에서 나타나 넓은 분포역을 나타낸 종은 왕대, 이대, 석류 등이고, 30곳 이상에서 나타난 종은 차, 모시 등이다. 조선시대 난대성 식물의 시·공간적 분포는 자연환경적 요인과 함께 이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이다.

#### ABSTRACT

The time-spatial distributional changes of fourteen warmth-tolerant plants have reconstructed by the use of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Chosun Dynasty on the periods of 1454, 1531, 1660, 1760, 1842~45, 1864, 1907 and 1931. Nine types of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four types of temporal distribution are, respectively, recognised from fourteen warmth-tolerant plants. The most widely distributed species which occur at more than 100 counties was the persimmon. Species occurred more than 50 counties include the large bamboo, small bamboo and pomegranate. Tea plant and ramie are also commonly found species at more than 30 counties. Past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warmth-tolerant plants seems to be the result of both natural and anthropogenic environments.

#### 서 론

이 연구는 한반도 식생의 지리적 분포와 기후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시도의 하나로 조선시대 고문헌(古文獻)에 기초하여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

이 논문은 과학기술부 자원으로 수행하는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온실가스저감기술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응하는 난대성 식생 분포역을 문화식물지리적 관점(Simmons, 1979)에서 복원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의 시대별, 식물종별 지리적 분포역을 파악한 후 이를 행정구역 별로 지도상에 표현하여 난대성 식물의 시·공간적 분포와 변천을 복원하였다.

조선시대의 식물의 분포를 복원하는데 활용된 고문헌은 일정 간격을 두고 지역별 식물 분포 자료가 있는 世宗實錄地理志(1454년), 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 東國輿地志(1660년대), 輿地圖書(1760년), 林園十六志(1842~1845년), 大東地志(1864), 增補文獻備考(1907년), 朝鮮一覽(1931년) 등이다.

참고문헌 자료 중 식생 분포를 복원하는데 적합한 자료는 각 도(道)의 부(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별로 물산(物産), 토산(土産), 토의(土宜), 토공(土貢) 항에 기록되어 있다. 연구에 선택된 난대성 식물종은 왕대, 이대, 차, 감, 탕자, 모시, 석류, 유자, 비자, 치자, 황칠, 감귤, 후박, 매화 등 14종이다.

### 문헌 자료

지리지에 나타난 공물(貢物)은 지역의 토산물을 상납하는 제도로 공물을 기초로 지역에서 나는 식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물 중 일부는 농가에서 나지 않거나,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것도 공물로 상납하는 등 민폐가 많았다(김운태, 1987; 이현혜, 1998). 따라서 특산물을 가지고 식물의 분포지를 복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고문헌에 의한 식물 분포지 복원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공우석, 1985; 공우석 외, 1984), 이 연구에서도 시대 및 지역별 식물의 분포 경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채택하였다.

世宗莊憲大王實錄地理志(이하 세종실록지리지)의 공부(貢賦), 약재(藥材), 토의(土宜), 토산(土産) 등에 기초해 당시의 식생 분포를 알 수 있다. 전국 335개 지역별로 총 1,251종류의 식물이 기록되었고, 도별 식물의 종수는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순이다(이덕봉, 1968).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토산조(土産條)는 식생과 관련된다. 동국여지지는 현종조의 지리지로 임란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이성무, 1981). 여지도서는 여러 읍지를 모아 만든 것으로 진공(進貢), 부세(賦稅) 등이 추가된 조선조 지리지의 완성판이었다(이성무, 1983; 이계학, 1995). 임원십육지의 예규지(倪奎志)에는 지방 특산물이 기록되어 있다. 대동지지는 청구도에 대한 지지이다.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는 상고시대부터 대한제국 말기까지의 우리나라 문물제도를 정리하여 엮은 책이다(이계학, 1995). 朝鮮物産과 朝鮮一覽은 일제가 자원 분포 조사를 위해 작성하였다.

### 식물별 분포지

**대나무(왕대, 竹; *Phyllostachys reticulata*와 이대, 箭竹; *Pseudosasa japonica*)**

시대별로 대나무가 나타난 지역은 왕대(혹은 참대)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에 65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50곳, 동국여지지에 51곳, 여지도서에 60곳, 임원십육지에 50곳, 대동지지에 99곳, 증보문헌비고에 29곳, 조선물산에 14곳이다(공우석, 2001).

왕대는 지리적으로는 남부전역·중부해안형에 속하며, 조선시대에 계속 나타나는 안정형에 속한다.

이대가 나타난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28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52곳, 동국여지지에 42곳, 여지도서에 51곳, 임원십육지에 50곳, 대동지지에 30곳, 증보문헌비고에 5곳이다(공우석, 2001).

이대는 전국형 분포를 보이며,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분포지가 차츰 줄어드는 완만감소형이다.

### 차(茶, *Camellia sinensis*)

신라 제27대 선덕왕 때에도 차는 있었으나, 삼국사기 권 제10에 의하면 제42대 흥덕왕 3년(828) 당나라에 다녀 온 사신 대렴(大廉)이 가지고 온 차 종자를 지리산에 심도록 하면서 재배가 시작되었다. 고려시대에 차는 사찰과 일부 상류 계층에서 상용되었으나 일반에게도 보급되면서 차의 보호

와 증식에 힘썼다(윤서석, 1970; 장국중, 1989). 고려에서 생산된 차는 뇌원다(腦原茶)와 대다(大茶) 등이었다(박용구, 1979).

세종실록지리지에 차가 나는 곳은 경상도 9곳(밀양, 울산, 진주, 함양, 고성, 하동, 산음, 함양, 진해), 전라도 25곳(옥구, 부안, 정읍, 나주, 영암, 영광, 무장, 함평, 남평, 무안, 고창, 흥덕, 장성, 순창, 구례, 광양, 장흥, 담양, 순천, 무진, 보성, 낙안, 고흥, 동북, 진원) 등 34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차 산지는 경상도 10곳(울산, 양산, 밀양, 진주, 곤양, 하동, 산음, 단성, 고성, 진해), 전라도 29곳(고부, 흥덕, 옥구, 태인, 나주, 광산, 영암, 영광, 함평, 고창, 장성, 진원, 무장, 남평, 무안, 장흥, 강진, 해남, 남원, 담양, 순창, 순천, 낙안, 보성, 능성, 광양, 흥양, 동북, 화순) 등 39곳이다.

동국여지지의 차가 나는 곳은 경상도 8곳(선산, 진주, 곤양, 하동, 산음, 단성, 고성, 진해), 전라도 26곳(고부, 흥덕, 옥구, 태인, 나주, 광주, 장성, 영광, 함평, 고창, 무장, 남평, 무안, 강진, 해남, 장성, 진원, 담양, 순천, 낙안, 보성, 능성, 광양, 흥양, 동북, 화순) 등 34곳이다.

여지도서의 차 산지는 경상도 8곳(진주, 밀양, 울산, 고성, 하동, 산청, 진해, 곤양), 전라도 23곳(전주, 광주, 함평, 고창, 능주, 동북, 담양, 화순, 순창, 창평, 임실, 남원, 흥덕, 태인, 나주, 남평, 무안, 장흥, 강진, 해남, 운봉, 진안, 낙안) 등 31곳이다.

임원십육지에 차가 나는 곳은 전라도 21곳(담양, 순창, 곡성, 순천, 낙안, 보성, 능주, 흥양, 동북, 화순, 고부, 흥덕, 옥구, 태인, 영광, 함평, 고창, 무장, 남평, 무안, 강진), 경상도 10곳(울산, 밀양, 진주, 하동, 산청, 곤양, 단성, 진해, 고성, 양산) 등 31곳이다.

대동지지의 차 산지는 경상도 9곳(울산, 양산, 진주, 하동, 곤양, 산청, 단성, 고성, 진해), 전라도 25곳(고부, 옥구, 태인, 흥덕, 나주, 광주, 장성, 영광, 영암, 고창, 무안, 남평, 무장, 남원, 담양, 순창, 순천, 능주, 낙안, 동북, 화순, 광양, 장흥, 강진, 해남) 등 34곳이다.

차나무는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내륙에도 나타나는 남부형 분포를 보이며, 조선시대 동안 계속 나타나는 안정형에 속한다.

### 감(柿, *Diospyros kaki*)

감은 중국, 한국, 일본 원산으로 고려시대부터 재배되었다. 1919년 조사에 의하면 경남 마산시 월장동에는 수령 1,012년 된 감나무가 있었다(안완식, 1999). 고려도경과 향약구급방에는 감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감나무는 굴나무와 함께 17세기 이후 재배된 주요 작물의 하나이다(장국중, 1989). 감나무는 목반시, 고종시, 월아, 대접감, 황감, 유감, 먹시, 장두감, 단감 등이 있다(김익두, 1998). 감나무는 쉽게 자연교배되므로 변이종이 많아, 1964년에는 200여종이 보고되었다(한국원예발달사 편 집위원회, 1980; 김용덕, 1999).

세종실록지리지의 감의 산지는 황해도 2곳(개성, 용진), 경기도 2곳(안성, 강화), 충청도 13곳(전의, 직산, 온수, 공주, 서천, 남포, 비인, 정산, 해미, 덕산, 예산, 청양, 보령), 경상도 13곳(합천, 진주, 함양, 곤남, 거창, 하동, 거창, 진성, 칠원, 산음, 안음, 삼가, 의령), 전라도 21곳(전주, 금구, 정읍, 태인, 고산, 나주, 영암, 남원, 순창, 구례, 운봉, 장수, 무주, 곡성, 광양, 담양, 순천, 무진, 고흥, 창평, 화순), 강원도 7곳(강릉, 양양, 삼척, 평해, 울진, 통천, 흡곡) 등 45곳이다(그림 1).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감의 산지는 경기도 3곳(경도, 수원, 강화), 충청도 4곳(한산, 은진, 서천, 온양), 경상도 25곳(대구, 청도, 인동, 영산, 창녕, 상주, 선산, 고령, 진주, 합천, 초계, 함양, 곤양, 거창, 사천, 삼가, 의령, 하동, 산음, 안음, 단성, 창원, 함안, 고성, 칠원), 전라도 23곳(고산, 태인, 공산, 영암, 함평, 고창, 장성, 해남, 남원, 담양, 용담, 창평, 곡성, 옥과, 운봉, 장수, 낙안, 보성, 능성, 광양, 구례, 동북, 화순) 등 55곳이다.

동국여지지의 감의 산지는 경기도 2곳(남양, 강화), 충청도 14곳(옥천, 임천, 한산, 연산, 홍주, 서천, 면천, 온양, 홍산, 덕산, 청양, 대흥, 아산, 예산), 경상도 21곳(상주, 선산, 금산, 고령, 진주,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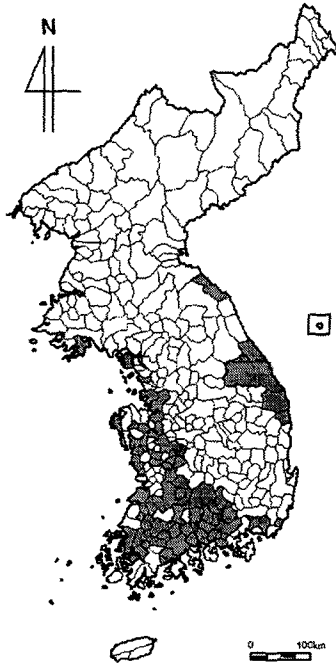


그림 1. 감나무 분포지(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천, 초계, 함양, 곤양, 거창, 사천, 삼가, 의령, 하동, 산음, 안음, 단성, 창원, 함안, 고성, 칠원), 전라도 27곳(전주, 금산, 정읍, 고산, 태인, 광주, 장성, 영암, 함평, 해남, 장성, 남원, 담양, 순창, 용담, 창평, 곡성, 옥과, 운봉, 장수, 순천, 낙안, 보성, 능성, 광양, 동북, 화순) 등 64곳이다.

여지도서의 감의 산지는 경기도 2곳(강화, 남양), 충청도 9곳(임천, 은진, 서천, 온양, 홍산, 청양, 연산, 이산, 부여), 경상도 26곳(대구, 진주, 함천, 상주, 성주, 선산, 기장, 청도, 삼가, 창원, 함안, 의령, 안의, 고성, 하동, 산청, 단성, 사천, 칠원, 인동, 영산, 초계, 함양, 곤양, 고령, 함창), 전라도 44곳(전주, 여산, 익산, 광주, 장성, 영암, 함평, 고창, 고부, 능주, 광양, 구례, 동북, 담양, 화순, 순창, 용담, 창평, 임실, 무주, 남원, 곡성, 옥과, 흥덕, 옥구, 임피, 용안, 함열, 고산, 진산, 김제, 만경, 금구, 정읍, 태인, 나주, 무장, 남평, 무안, 진도, 해남, 운봉, 진안, 낙안) 등 81곳이다.

임원십육지의 감의 산지는 경기도 4곳(안산, 부

평, 남양, 강화), 충청도 14곳(옥천, 임천, 한산, 은진, 홍주, 서천, 면천, 온양, 홍산, 덕산, 청양, 대흥, 아산, 예산), 전라도 26곳(남원, 담양, 순창, 용담, 창평, 곡성, 옥과, 운봉, 장수, 순천, 낙안, 보성, 능주, 광양, 동북, 화순, 전주, 금산, 정읍, 고산, 태인, 광주, 장성, 영암, 함평, 해남), 경상도 26곳(풍기, 대구, 청도, 선산, 금산, 고령, 인동, 영산, 상주, 진주, 거창, 사천, 삼가, 의령, 하동, 산청, 안의, 초계, 함양, 곤양, 함천, 단성, 창원, 고성, 칠원, 함안) 등 70곳이다.

대동지지의 감의 산지는 경기도 5곳(수원, 강화, 남양, 인천, 안산), 충청도 32곳(공주, 임천, 한산, 부여, 은진, 연산, 진잠, 회덕, 홍주, 면천, 태안, 서천, 온양, 덕산, 홍산, 비인, 보령, 남포, 예산, 신창, 평택, 해미, 청주, 천안, 옥천, 보은, 문의, 목천, 회인, 진천, 영동, 황간), 경상도 38곳(경주, 기장, 안동, 영해, 순흥, 용궁, 대구, 인동, 칠곡, 청도, 영산, 상주, 성주, 금산, 개령, 지례, 고령, 함창, 선산, 진주, 거창, 하동, 함양, 초계, 함천, 곤양, 사천,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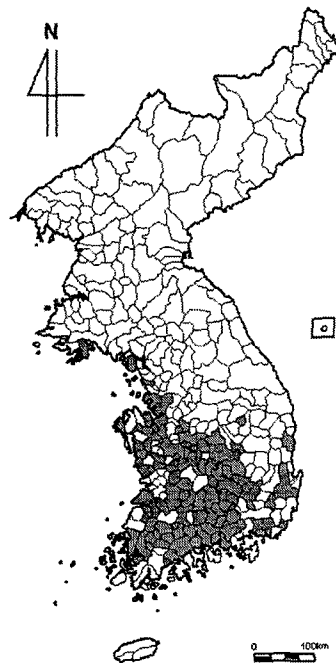


그림 2. 감나무 분포지(1864년 대동지지).

가, 의령, 안의, 산청, 단성, 김해, 창원, 함안, 거성, 웅천, 칠원), 전라도 35곳(전주, 고부, 진산, 고산, 정읍, 태인, 부안, 흥덕, 나주, 광주, 장성, 영암, 고창, 무안, 함평, 남평, 남원, 담양, 용담, 임실, 진안, 장수, 운봉, 곡성, 옥과, 창평, 순천, 능주, 낙안, 보성, 동북, 화순, 구례, 광양, 해남), 황해도 1곳(강령) 등 111곳이다(그림 2).

조선일람의 감의 산지는 경기도 2곳(수원, 강화), 충청도 11곳(영동, 옥천, 괴산, 논산, 보령, 홍성, 서산, 예산, 청양, 아산, 당진), 전라도 10곳(전주, 임실, 남원, 순창, 무주, 장수, 순천, 영광, 광양, 장성), 경상도 6곳(문경, 영주, 영덕, 봉화, 고령, 동래) 등 29곳이다.

감나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중부 해안에도 나타나는 남부 전역·중부 해안형이며,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 분포지가 늘어나는 증가형에 속한다. 연구 대상 식물 중 일부가 일제 때 분포지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자연적인 원인과 함께 식민지 수탈을 피하기 위한 사회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탱자(枳, *Poncirus trifoliata*)

세종실록지리지의 탱자 산지로 전라도의 제주, 정의, 대정 3곳을 제시했으나, 실제로 현재의 제주 1곳에 해당한다(이하에서도 제주 1곳으로 표기).

동국여지지에 탱자가 나는 곳은 전라도 10곳(광주, 영암, 장흥, 강진, 해남, 제주, 순천, 낙안, 보성, 홍양)이다.

여지도서의 탱자 산지는 충청도 1곳(해미), 강원도 7곳(삼척, 양양, 간성, 통천, 울진, 흡곡, 강릉), 전라도 1곳(제주) 등 8곳이다.

임원십육지의 탱자 산지는 경기도 1곳(강화), 전라도 9곳(순천, 낙안, 보성, 홍양, 광주, 장흥, 강진, 해남, 제주) 등 10곳이다.

조선일람에 탱자가 나는 곳은 제주 1곳이다.

탱자나무는 남부해안형에 속하고, 시대적 분포는 큰 변화가 없는 안정형에 속한다.

#### 모시(苧, *Boehmeria frutescens*)

모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신라 헌안왕 4년(860년)이며(위은숙, 1998), 후기 신라에서 모시는 널리 재배되었다(장국종, 1989; 최상준 외, 1996). 모시베 짜기는 발해, 통일신라, 고려시대에도 중요하였다. 고려 때에는 모시베 생산이 현저히 늘어나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등지가 유명하였다(손영종, 조희승, 1990). 12세기에는 모시의 생산량이 늘어나 많은 양이 유통되었다(위은숙, 1998). 충렬왕 14년(1288)에는 군현의 호마다 모시 등을 거두어 내고(內庫)에 수송하였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0). 조선시대에는 남부지방에서는 목화와 모시를, 북쪽지방에서는 삼을 주로 재배하였다. 모시는 주로 기후가 온화한 충청도와 전라도에 자랐고 충청도 한산모시·임천모시가 유명하였다(김내창, 1992; 김익두, 1998).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모시는 충청도 13곳(임천, 한산, 서천, 남포, 비인, 정산, 홍산, 석성, 부여, 홍주, 서산, 해미, 청양), 경상도 1곳(의령), 전라도 21곳(전주, 익산, 김제, 금구, 만경, 임피, 옥구, 함열, 용안, 부안, 태인, 여산, 해진, 영광, 함평, 장성, 담양, 보성, 능성, 창평, 진원), 황해도 2곳(웅진, 강령), 강원도 2곳(강릉, 삼척) 등 39곳에 났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모시는 충청도 12곳(임천, 한산, 정산, 연산, 이산, 부여, 석성, 서천, 서산, 면천, 홍산, 청양), 경상도 3곳(울산, 의령, 함안), 전라도 15곳(김제, 금구, 정읍, 부안, 함열, 고산, 태인, 함평, 장성, 진원, 해남, 담양, 임실, 순천, 보성), 황해도 1곳(강령), 강원도 3곳(강릉, 삼척, 양양) 등 34곳에서 산출되었다.

동국여지지의 모시는 충청도 9곳(임천, 정산, 연산, 이산, 부여, 석성, 서천, 면천, 홍산), 경상도 2곳(의령, 함안), 전라도 14곳(김제, 금구, 정읍, 부안, 함열, 태인, 장성, 함평, 해남, 진원, 담양, 임실, 순천, 보성), 황해도 1곳(강령), 강원도 3곳(강릉, 삼척, 양양) 등 29곳에서 났다.

여지도서의 모시 산지는 충청도 9곳(임천, 한산, 서천, 정산, 홍산, 연산, 부여, 석성, 정산), 강원도 3곳(삼척, 양양, 강릉), 경상도 2곳(함안, 의

령), 전라도 6곳(장성, 함평, 담양, 정읍, 태인, 해남) 등 18곳이다.

임원십육지의 모시의 산지는 충청도 10곳(임천, 한산, 정산, 노성, 부여, 석성, 서천, 서산, 면천, 홍산), 전라도 11곳(담양, 순천, 보성, 김제, 정읍, 부안, 함열, 태인, 장성, 함평, 해남), 경상도 3곳(울산, 의령, 함안), 강원도 3곳(강릉, 삼척, 양양), 황해도 1곳(강령) 등 28곳이다.

대동지지의 모시 산지는 충청도 8곳(임천, 한산, 석성, 연산, 정산, 서산, 서천, 홍산), 경상도 3곳(울산, 의령, 함안), 전라도 15곳(김제, 금구, 함열, 고산, 옥구, 정읍, 태인, 부안, 나주, 장성, 담양, 임실, 진안, 순천, 해남) 등 26곳이다.

조선일람의 모시 산지는 충청도 9곳(보령, 홍성, 서산, 서천, 예산, 부여, 청양, 당진, 아산), 전라도 14곳(익산, 옥구, 김제, 고창, 정읍, 부안, 순창, 무주, 장수, 나주, 강진, 고흥, 장흥, 장성), 경상도 3곳(영천, 고령, 남해), 함북 1곳(경흥) 등 27곳이다.

모시풀은 지리적으로 남부지방에 집중되며 중부지방에서는 서해안에 주로 나타나는 남부 전역 중부서해안형이며, 조선시대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안정형을 보인다.

#### 석류(石榴, *Punica granatum*)

석류는 유럽 동남부에서 히말라야에 걸쳐 자라는 나무인데,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추정한다(안완식, 1999). 석류는 제주, 영암, 함평에서 나는 것이 좋다(김영진 · 이은웅, 2000).

세종실록지리지의 석류의 산지는 경상도 9곳(양산, 동래, 창녕, 영산, 현풍, 진주, 사천, 진해, 함양), 전라도 28곳(전주, 익산, 금구, 임피, 태인, 고산, 여산, 나주, 영암, 영광, 강진, 함평, 남평, 무안, 고창, 흥덕, 남원, 순창, 구례, 광양, 장흥, 순천, 무진, 보성, 낙안, 고흥, 화순, 진원), 강원도 1곳(평해) 등 38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석류의 산지는 경상도 26곳(기장, 언양, 영해, 대구, 밀양, 현풍, 영산, 창녕, 지례, 진주, 초계, 함양, 곤양, 남해, 사천, 의령, 하

동, 산음, 단성, 김해, 창원, 함안, 거제, 고성, 진해, 웅천), 전라도 29곳(전주, 고부, 금구, 정읍, 고산, 태인, 나주, 광산, 영암, 함평, 고창, 장성, 남평, 무안, 장흥, 진도, 강진, 해남, 남원, 담양, 창평, 곡성, 순천, 낙안, 보성, 능성, 광양, 구례, 화순) 등 55곳이다.

동국여지지의 석류가 나는 곳은 경상도 27곳(진주, 초계, 함양, 곤양, 남해, 사천, 의령, 하동, 산음, 단성, 김해, 창원, 함안, 거제, 고성, 진해, 웅천), 전라도 26곳(전주, 고부, 금구, 정읍, 태인, 나주, 광주, 장성, 영암, 함평, 고창, 남평, 무안, 장흥, 진도, 강진, 해남, 장성, 남원, 담양, 순천, 낙안, 능성, 광양, 구례, 화순) 등 53곳이다.

여지도서에 석류가 나는 곳은 경상도 27곳(대구, 진주, 동래, 기장, 언양, 밀양, 청도, 김해, 창원, 함안, 의령, 거제, 고성, 하동, 산청, 단성, 사천, 진해, 웅천, 현풍, 영산, 창녕, 초계, 함양, 곤양, 남해, 지례), 전라도 35곳(전주, 광주, 장성, 영암, 영광, 함평, 고창, 능주, 광양, 구례, 홍양, 동북, 담양, 화순, 순창, 창평, 임실, 남원, 옥과, 고산, 금구, 정읍, 태인, 나주, 남평, 무안, 장흥, 진도, 강진, 해남, 강진, 운봉, 순천, 낙안, 보성) 등 62곳이다.

임원십육지의 석류 산지는 전라도 28곳(남원, 담양, 창평, 순천, 낙안, 능주, 광양, 구례, 홍양, 동북, 화순, 전주, 고부, 금산, 금구, 정읍, 태인, 나주, 광주, 장성, 영암, 함평, 남평, 무안, 장흥, 진도, 강진, 제주), 경상도 25곳(영해, 대구, 밀양, 영산, 현풍, 창녕, 진주, 사천, 의령, 하동, 산청, 초계, 함양, 곤양, 남해, 단성, 창원, 김해, 진해, 거제, 동래, 고성, 함안, 웅천, 기장) 등 53곳이다.

대동지지의 석류 산출지는 경상도 23곳(기장, 언양, 동래, 영해, 대구, 현풍, 영산, 창녕, 지례, 진주, 하동, 함양, 초계, 곤양, 남해, 사천, 의령, 산청, 단성, 김해, 창원, 함안, 고성), 전라도 30곳(전주, 고부, 금구, 함열, 고산, 정읍, 태인, 나주, 광주, 장성, 영암, 고창, 무안, 함평, 남평, 남원, 담양, 곡성, 창평, 낙안, 보성, 동북, 화순, 구례, 광양, 홍양, 장흥, 진도, 강진, 해남) 등 53곳이다.

석류나무는 남부지방의 내륙과 해안에 널리 분

포하는 남부형으로, 조선시대 동안 분포지에 큰 변화가 없는 안정형이다.

#### 유자(柚子, *Citrus junos*)

유자의 원산지는 중국의 양자강 상류인 사천(四川), 호북(湖北), 운남(雲南) 등지이며, 장보고가 신라 문성왕 2년(840)에 도입하였다. 15~16세기에는 귤, 감자, 유자 등의 감귤류 재배가 급속히 보급되었다. 또한 과수를 전문으로 하는 과수원이 많이 나타나서, 제주도에만 관영 과일나무밭이 19개가 운영되었다. 제주도에는 개인이 경영하는 과수원도 많아 귤과 유자를 생산하였다(장국중, 1989). 현재 유자는 전국의 2,900ha에서 매년 1만 3,000톤 정도가 생산되며 그 중 약 29%가 남해와 고흥에서 난다. 고흥은 근대 유자 확대재배기술의 진흥지이고, 남해는 최근에 재배가 활발해졌다(안완식, 1999).

세종실록지리지의 유자 산지는 전라도 3곳(장흥, 낙안, 제주)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유자 산지는 경상도 10곳(기장, 곤양, 남해, 사천, 하동, 창원, 거제, 고성, 진해, 웅천), 전라도 11곳(영암, 장흥, 진도, 강진, 해남, 제주, 순천, 낙안, 보성, 광양, 홍양) 등 21곳이다.

동국여지지에 유자가 나는 곳은 경상도 9곳(곤양, 남해, 사천, 하동, 창원, 거제, 고성, 진해, 웅천), 전라도 12곳(영암, 장흥, 진도, 강진, 해남, 제주, 순천, 낙안, 보성, 광양, 구례, 홍양) 등 21곳이다.

여지도서의 유자 산지는 경상도 7곳(동래, 기장, 거제, 고성, 하동, 곤양, 남해), 전라도 11곳(영암, 광양, 홍양, 장흥, 진도, 강진, 해남, 순천, 낙안, 보성, 제주) 등 18곳이다.

임원십육지에 유자 산지는 전라도 12곳(순천, 낙안, 보성, 광양, 구례, 홍양, 영암, 장흥, 진도, 강진, 해남, 제주), 경상도 12곳(현풍, 거창, 사천, 하동, 곤양, 남해, 창원, 진해, 동래, 고성, 웅천, 기장) 등 24곳이다.

대동지지에 유자가 나는 곳은 경상도 8곳(하동,

곤양, 사천, 창원, 거제, 고성, 웅천, 진해), 전라도 11곳(영암, 제주, 순천, 능주, 낙안, 보성, 광양, 홍양, 장흥, 진도, 강진) 등 19곳이다.

유자나무는 주로 남부해안지방에서 자라는 남부해안형이며, 조선시대 동안 큰 변화가 없는 안정형 분포를 보인다.

#### 비자(檉子, *Torreya nucifera*)

세종실록지리지에 비자는 경상도 1곳(동래), 전라도 13곳(나주, 해진, 영암, 영광, 강진, 함평, 무안, 장성, 장흥, 보성, 고흥, 진원, 제주) 등 14곳에서 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비자 산지는 경상도 3곳(고령, 남해, 단성), 전라도 11곳(나주, 함평, 장성, 무안, 장흥, 진도, 강진, 해남, 제주, 보성, 홍양) 등 14곳이다.

동국여지지의 비자 산지는 경상도 3곳(고령, 남해, 단성), 전라도 13곳(나주, 장성, 함평, 무안, 장흥, 진도, 강진, 해남, 제주, 장성, 순천, 보성, 홍양) 등 16곳이다.

여지도서의 비자 산지는 충청도 1곳(결성), 경상도 2곳(남해, 고령), 전라도 5곳(함평, 나주, 장흥, 강진, 제주) 등 8곳이다.

임원십육지의 비자 산지는 전라도 12곳(순천, 보성, 홍양, 나주, 장성, 함평, 무안, 장흥, 진도, 강진, 해남, 제주), 경상도 3곳(고령, 남해, 단성) 등 15곳이다.

대동지지의 비자 산지는 경상도 5곳(고령, 남해, 단성, 고성, 웅천), 전라도 11곳(나주, 장성, 무안, 함평, 제주, 순천, 보성, 홍양, 장흥, 진도, 강진) 등 16곳이다.

조선일람의 비자 산지는 전라도 4곳(함평, 고흥, 장성, 진도)이다.

비자나무는 주로 호남과 영남에 자라는 남부형이며, 조선시대 동안 분포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안정형이다.

#### 치자(梔子, *Gardenia jasminoides* var. *grandiflora*)

세종실록지리지의 치자 산지는 전라도 1곳(제주)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치자 산지는 경상도 2곳(남해, 거제), 전라도 6곳(장흥, 제주, 남원, 순천, 낙안, 구례) 등 8곳이다.

동국여지지의 치자 산지는 경상도 2곳(남해, 거제), 전라도 9곳(장흥, 진도, 강진, 해남, 제주, 남원, 순천, 낙안, 구례) 등 11곳이다.

여지도서의 치자 산지는 경상도 1곳(거제), 전라도 3곳(장흥, 낙안, 제주) 등 4곳이다.

임원십육지의 치자 산지는 전라도 9곳(남원, 순천, 낙안, 구례, 장흥, 진도, 강진, 해남, 제주), 경상도 2곳(남해, 거제) 등 11곳이다.

대동지지의 치자 산지는 경상도 2곳(남해, 거제), 전라도 6곳(제주, 남원, 순천, 낙안, 구례, 장흥) 등 8곳이다.

조선일람의 치자 산지는 전라도 1곳(남원)이다.

치자나무는 주로 호남에서 자라며 영남에도 나타나는 남부서해안형이며, 조선시대 동안 분포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안정형이다.

#### 황칠(黃漆, *Dendropanax morbifera*)

당서(唐書) 동이전(東夷傳) 백제에는 세 섬에서 황칠(黃漆)이 난다고 기록하였다(이민수, 1981).

동국여지지에 의하면 황칠은 전라도 2곳(강진, 해남)에서 산출된다. 임원십육지에 의하면 황칠의 산지는 전라도 1곳(강진)이다.

황칠나무는 호남의 남해안지방에만 자라는 호남남해안형으로 산발적으로 기록이 나타난다.

#### 감귤(柑橘, *Citrus sinensis*)

감귤은 인도와 중국의 접경인 히말라야 산록 원산으로 중국을 거쳐 삼한시대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한다(안완식, 1999; 김용덕, 1999).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의하면 삼국에서는 감귤 등이 재배되었다(위은숙, 1998). 日本書紀 卷六 수인천황(垂仁天皇) 六年에 따르면 밀감은 제주도의 특산물로 알려져 일본에서 이를 구하고자 사람을 파견하였다. 해동역사 卷第二十六 과류(果類)에는 호남

지방인 무주(武州)에서 귤과 유자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다(박용구, 1979). 통일신라와 고려에서도 감귤류는 탐라에서 세공으로 바쳤다. 고려시대에는 귤나무를 전라도에서 개성에 옮겨심기도 하였다(장국중, 1989). 高麗史 列傳 張舜龍條와 忠烈王 8年條에 감귤이 중요한 행사에 사용되고 감귤류를 제주도나 남해안뿐만 아니라 경기지방에까지 이식하였으나 말라죽어 실패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제주 감귤이 매년 20運(운은 3,000~5,000개) 정도 육지로 반출되었다. 전라도 일부 해안지대에서도 귤이 재배되었으나, 공출에 따른 부작용으로 생산량이 감소되어 점차 사라졌다(윤서석, 1970). 귤 생산은 궁중의 수요 때문에 임금도 관심이 많아 태종 13년(1413)에도 제주의 감귤을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에 옮겨 심었다. 귤(橘)은 황감(黃柑), 금귤(金橘), 귤(橘), 청귤(靑橘), 유감(乳柑), 감자(柑子), 산귤(山橘), 동정귤(洞庭橘), 왜귤(倭橘) 등이 있었는데, 금귤, 유감, 동정귤이 으뜸 가고, 감자와 청귤이 버금가며, 유자와 산귤이 다음이라 하였다. 속대전 공전(工典)조에 제주에서는 귤을 심을 것을 권장하였는데, 이는 공물을 걷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영조실록 37년(1761)에는 과도한 진상으로 귤나무 재배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김영진·이은웅, 2000).

17세기 이후에는 과일나무 발이 늘어났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였다. 제주도에는 15세기 이래 귤나무 등 과일나무 발이 19개였으나, 17세기 중엽에는 36개로 늘어났고 6천6백7그루가 재배되었다(장국중, 1989; 김용덕, 1999).

요즘 많이 소비되는 온주밀감(*Citrus unshiu*)은 박영효가 일본에서 도입하여 제주의 과원을 조성했다. 현재 온주밀감의 노목은 일본에서 도입하여 1911년 프랑스 엄신부가 심은 것과 1913년에 정의 초등학교 교장이 서귀포 서흥리에 심은 것이 있다. 1950년대부터는 여러 종의 감귤종이 도입 재배되었고, 1967년부터는 경남과 전남의 해안지방에도 감귤의 재배가 시도되었으나 겨울철 추위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한국원예발달사 편집위원회, 1980).



지난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주도 전체 농경지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감귤 재배 면적이 현재에는 2만 5천 8백 ha로 전체 농경지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김용덕, 1999).

귤의 산지는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경상도 1곳(동래), 전라도 7곳(나주, 영암, 강진, 순천, 고흥, 제주),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전라도 1곳(제주), 동국여지지와 임원십육지에는 전라도 1곳(제주), 여지도서에는 전라도 1곳(제주), 대동지지에는 전라도 3곳(제주, 진도, 해남) 그리고 조선일람에는 전라도 1곳(제주)이 알려졌다.

귤나무는 제주와 호남의 남해안지방에 자라는 호남남해안형으로 조선시대 동안 계속적으로 자라는 안정형이다.

#### 후박(厚朴, *Machilus thunbergii*)

세종실록지리지의 후박 산지는 경상도 1곳(동래), 전라도 1곳(제주) 등 2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임원십육지, 대동지지, 조선일람의 후박 산지는 전라도 1곳(제주)이다.

후박나무는 제주와 부산에 자라는 제주·영남 남해안형으로 제주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동안 계속적으로 자라는 지속형이다.

#### 매화(梅, *Prunus mume*)

세종실록지리지의 매화 산지는 전라도 6곳(전주, 광양, 장흥, 순천, 보성, 낙안)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매화 산지는 경상도 1곳(현풍), 전라도 3곳(남평, 장흥, 담양) 등 4곳이다.

동국여지지의 매화 산지는 전라도 1곳(담양)이다.

여지도서의 매화 산지는 경상도 17곳(합천, 선산, 청도, 삼가, 창원, 함양, 의령, 고성, 하동, 산청, 단성, 사천, 현풍, 영산, 창령, 초계, 고령), 전라도 6곳(광주, 장성, 담양, 남평, 장흥, 낙안) 등 25곳이다.

임원십육지의 매화 산지는 전라도 6곳(담양, 순천, 낙안, 광주, 장성, 장흥), 경상도 11곳(고령, 경산, 영산, 현풍, 진주, 사천, 의령, 단성, 함안) 등

17곳이다.

대동지지에 매화가 나는 곳은 경상도 10곳(울산, 기장, 현풍, 영산, 고령, 사천, 의령, 단성), 전라도 6곳(광주, 장성, 남평, 순천, 낙안, 장흥) 등 16곳이다.

매화나무는 남부지방 중 주로 영남지방에 집중 분포하는 남부영남집중형이며, 18세기 후반 이후에 분포지가 증가하였다.

### 분포지 변화

연구 대상 14종 난대성 식물의 지리적 분포지는 시대에 따라 달랐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함께 인간의 이용에 따른 재배지 확장 등 사회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나무가 나타난 지역은 왕대(혹은 참대)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에 65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50곳, 동국여지지에 51곳, 여지도서에 60곳, 임원십육지에 50곳, 대동지지에 99곳, 증보문헌비고에 29곳, 조선물산에 14곳이다. 이대가 나타난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28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52곳, 동국여지지에 42곳, 여지도서에 51곳, 임원십육지에 50곳, 대동지지에 30곳, 증보문헌비고에 5곳이다.

차나무가 자란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34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39곳, 동국여지지에 34곳, 여지도서에 31곳, 임원십육지에 31곳, 대동지지에 34곳이다.

감나무가 나타난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45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55곳, 동국여지지에 64곳, 여지도서에 81곳, 임원십육지에 70곳, 대동지지에 111곳, 조선일람에 29곳이다.

탱자나무가 분포한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1곳, 동국여지지에 10곳, 여지도서에 8곳, 임원십육지에 10곳, 조선일람에 1곳이다.

모시가 나타난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39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34곳, 동국여지지에 29곳, 여지도서에 18곳, 임원십육지에 28곳, 대동지지에 26곳, 조선일람에 27곳이다.

표 1. 시대별 식물종 출현지

	世宗實錄 地理志 (1454年)	新增東國 輿地勝覽 (1531年)	東國輿 地志 (1660年代)	輿地圖書 (1760年)	林園十六 志(1842 ~1845年)	大東地志 (1864年)	增補文獻 備考 (1907年)	朝鮮一覽 (1931年)	합 계
왕대 竹	65	50	51	60	50	99	29	-	404
이대 箭竹	28	52	42	51	50	30	5	-	258
차 茶	34	39	34	31	31	34	-	-	203
감 柿	45	55	64	81	70	111	29	-	455
탱자 枳	1	-	10	8	10	-	-	1	30
모시 苧	39	34	29	18	28	26	-	27	201
석류 石榴	38	55	53	62	53	53	-	-	314
유자 柚子	3	23	21	18	24	19	-	-	108
비자 榲子	14	16	16	8	15	16	-	4	89
치자 梔子	1	8	11	4	11	8	-	1	44
황칠 黃漆	-	-	2	-	1	-	-	-	3
감귤 柑橘	7	1	1	1	1	3	-	1	15
후박 厚朴	2	1	1	1	1	1	-	1	8
매화 梅	6	4	1	25	17	16	-	-	69
합 계	283	338	336	368	362	416	63	35	2,201

석류나무가 출현한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38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55곳, 동국여지지에 53곳, 여지도서에 62곳, 임원십육지에 53곳, 대동지지에 53곳이다.

유자나무가 나타난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3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23곳, 동국여지지에 21곳, 여지도서에 18곳, 임원십육지에 24곳, 대동지지에 19곳이다.

비자나무가 자란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14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16곳, 동국여지지에 16곳, 여지도서에 8곳, 임원십육지에 15곳, 대동지지에 16곳, 조선일람에 4곳이다.

치자나무가 분포한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1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8곳, 동국여지지에 11곳, 여지도서에 4곳, 임원십육지에 11곳, 대동지지에 8곳, 조선일람에 1곳이다.

황칠나무가 분포한 지역은 동국여지지에 2곳, 임원십육지에 1곳이다. 귤나무가 나타난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7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1곳, 동국여지지에 1곳, 여지도서에 1곳, 임원십육지에

1곳, 대동지지에 3곳, 조선일람에 1곳이다.

후박나무가 나타난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2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1곳, 동국여지지에 1곳, 여지도서에 1곳, 임원십육지에 1곳, 대동지지에 1곳, 조선일람에 1곳이다.

매화나무가 나타난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6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4곳, 동국여지지에 1곳, 여지도서에 25곳, 임원십육지에 17곳, 대동지지에 16곳이다.

문헌별로 난대성 식물이 출현한 지역의 횡수는 대동지지(416곳), 여지도서(368곳), 임원십육지(362곳), 신증동국여지승람(338곳), 동국여지지(336곳), 세종실록지리지(283곳), 신증문헌비고(63곳), 조선일람(35곳) 순이다. 시대별로 식물들이 출현한 지역수가 다른 것이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혹은 인문사회적인 이유인가에 대하여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식물종별 출현지 횡수를 보면 감(455곳), 왕대(404곳), 석류(314곳), 이대(258곳), 차(203곳), 모시(201곳), 유자(108곳), 비자(89곳), 매화(69

곳), 치자(44곳), 탕자(30곳), 감귤(15곳), 후박(8곳), 황칠(3곳)의 순이었다. 분포지의 넓고 좁은 것이 수요에 의한 것인지 혹은 자연조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향후 분석이 요구된다.

## 결론

고문헌에 기초하여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왕대, 이대, 차, 감, 탕자, 모시, 석류, 유자, 비자, 치자, 황칠, 감귤, 후박, 매화 등 14종의 난대성 식물종의 시·공간적 분포와 변천을 문화식물지리적 관점에서 복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식생 분포역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지 못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 여지도서, 임원십육지, 대동지지, 증보문헌비고, 조선일람 등 고문헌을 이용했다.

난대성 식물종별 지리적 분포 유형은 전국형, 남부 전역·중부해안형, 남부 전역·중부서해안형, 남부형, 남부해안형, 남부서해안형, 호남남해안형, 제주·영남남해안형 등 9가지 구분된다. 전국형 분포를 보이는 식물은 이대 1종, 남부 전역·중부해안형은 왕대와 감나무 2종, 남부 전역·중부서해안형은 모시풀 1종, 남부형은 석류나무, 차나무, 비자나무 3종, 남부해안형은 탕자나무, 유자나무 2종, 남부서해안형은 치자나무 1종, 호남남해안형은 황칠나무, 굴나무 등 2종, 제주·영남남해안형은 후박나무 1종, 남부영남집중형은 매화나무 1종이다.

난대성 식물종별 시계열적 분포 유형을 보면 안정형, 완만감소형, 증가형, 산발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조선시대 동안 시대에 따라 큰 변화 없는 안정형은 왕대, 차나무, 탕자나무, 모시풀, 석류나무, 비자나무, 유자나무, 치자나무, 굴나무, 후박나무 등 10종이고, 후기로 가면서 분포가 줄어드는 완만감소형은 이대, 후기로 갈수록 분포지가 확산되는 증가형은 감나무, 매화나무 등 2종, 분포 기록이 드물게 나타나는 산발형으로 황칠나무가 있다.

조선시대 동안 어느 시기라도 전국 100곳 이상

의 군현에서 출현하여 가장 광범위한 분포를 보인 종은 감나무 1종이다. 50곳 이상에서 나타나 넓은 분포역을 나타낸 종은 왕대, 이대, 석류 등 3종이고, 30곳 이상에서 나타난 종은 차, 모시 등 2종이다. 10곳 이상에서 보고된 종은 탕자, 유자, 비자, 치자, 매화 등 5종으로 가장 흔하였다. 반면 5곳 이상에서 국지적으로 출현한 종은 감귤 1종이며, 가장 좁은 분포를 보여 5곳 이하에서 발견된 종은 황칠, 후박 등 2종이다.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식물인 감, 왕대, 이대, 석류, 차, 모시 등이 분포역이 넓어 인위적인 조건이 자연환경 외에 식물의 분포역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가 많았던 감귤의 분포역이 극히 일부 남부지역에 국한된 것은 자연조건이 인위적인 요소와 함께 난대성 식물의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연구된 식물종들의 분포역 변화와 기후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공우석. 1985. 한반도의 대나무류 분포와 그 환경요인에 관한 식물지리학적 연구, 한국생태학회지, 8, 89-98.
- 공우석. 2001. 대나무숲의 분포역 변화와 환경요인, 2001년도 대한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요약집, 161-164쪽, 2001. 5.25-26, 전남대학교.
- 공우석 외. 1984. 한국의 차나무 분포에 대한 기후학적 연구, 지리학연구, 9, 583-594.
- 김내창. 1992. 리조봉건시기 옷감생산과 그 발전, 조선고고연구, 85, 44-48.
- 김운태. 1987. 조선왕조행정사, 박영사.
- 김영진. 이은웅. 2000.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용덕. 1999. 이 땅의 토박이 동식물 토종, 농민신문사.
- 김익두. 1998. 우리 문화 길잡이, 한국문화사.
- 박용구. 1979. 한국식료품사, 정음문고 14, 정음사.
- 손영중, 조희승. 1990. 조선수공업사, 백산자료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0. 국역신증문헌비고 재  
용고.
- 안완식. 1999.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종자, 사계절.  
윤서석. 1970. 한국식품사, 한국문화사대계 IV 풍  
속예술사, 193~397,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위은숙. 1998. 고려후기 농업경제사연구, 도서출판  
해안.
- 이계학. 1995. 서론과 이론적 고찰, 이계학 외 (공  
저), 가칭 민국여지승람편찬을 위한 연구, 1-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덕봉. 1968. 한국생물학사, 한국문화사대계 III 과  
학기술사, 275-45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이민수. 1981. 조선전, 탐구당.
- 이성무 해제, 1981. 전국지리지 1,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한국지리지총서, 아세아문  
화사.
- 이성무. 1983. 해제 한국지리지총서 1, 아세아문화  
사.
- 이이화. 1990. 우리 겨레의 전통생활, 려강출판사.
- 이현혜. 1998.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 일조각.
- 장국종. 1989. 조선농업사 1, 백산자료원.
- 최상준 외. 1996. 조선기술발전사 2(삼국시기, 발  
해, 후기신라 편), 백산자료원.
- 한국원예발달사편집위원회. 1980. 송암 표현구 교  
수 회갑기념 한국원예발달사, 서울대학교 출  
판부.
- Simmons, I. G. 1979. Biogeography: Natural and  
Cultural, Arnold, London.  
(古文獻)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輿地圖書  
林園十六志  
新增文獻備考  
朝鮮王朝實錄  
(일문 문헌)  
朝鮮總督府. 1927. 朝鮮物産.  
朝鮮地理研究會. 1931. 朝鮮一覽.

(Accepted: April 12, 2001)